

# 중국어교육으로 언어변화와 언어기능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 회화교재 속의 동사 ‘看’에 대한 분석을 일례로\*

박찬욱\*\*

##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분석과 비교
3. 결과의 토론
4. 요약과 함축

## 1. 문제의 제기

본고는 회화교재 — 『한어구어』시리즈 — 속의 ‘看’을 ‘실재’와 ‘규범’ 속의 ‘看’과 비교해 봄으로써 중국어교육으로 언어변화와 언어기능의 개념 도입이 그동안 왜 미진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우선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본고는 기본적으로 ‘실재(實在)’, ‘인공(人工)’, ‘규범(規範)’이란 세 가지 개념을 틀로 삼는다. 이는 박승익(2015:26)의 논의에 기댄 것으로서, 본고에서의 ‘실재’란 “무엇이 어떻게”는 기술적 언급’을, ‘규범’은 “무엇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언급’을 지칭한다. 본고의 논증 대상인 교재는 저자가 ‘실제 언어생활에 대해 어떻게’고 기술한 것이란 점에서 ‘실제’를, ‘이렇게 말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혼종적 성격의 ‘인공’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같은 설정은 교재의 분석결과를, 전산언어학을 토대로 실제 사용된 구어/문어 자료의 빈도치를 보여준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2009, 즉 ‘실재’)와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한자의 의미기원과 변천을 보여준 『漢字源流字典』(2008, 즉 ‘규범’)에 비추어 봄으로써 중국어 교육으로 언어변화와 기능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대한 성찰과 필요성을 확보하려는 데 기인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1) 『한어구어』 6권, 제5과

瑪麗: 大衛, 快來! 這兒有你喜歡的卡通書。

大衛: 在哪兒? 我看看! 喲, 這麼多! 買那個好呢?

瑪麗: 我看你都該買, 得看你帶了多少錢!

大衛: 你看, 這兒還有《三國演義》呢。

예(1)에서 看은 총 4번 출현한다. 그런데 그 의미와 기능들이 모두 다르다. 『現代漢語詞典』(2012:725)에 제시된 의미항에 비추어 간략히 일별해보자. ‘我看看’의 看은 ‘보다’(①번 항)의 의미를 갖는다. 신체적인 행위 그 자체이다. 두 번째 ‘我看’의 看은 ‘판단하다’(②번 항)이다. ‘보는’ 행위에서 더 나아간 정신적 행위이다. 세 번째 ‘得看’의 看은 ‘~에 달려있다’(③번 항)이다. 준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을 가리킨다. 네 번째 ‘你看’의 看은 ‘보다’이다. 하지만 네 번째 ‘보다’가 첫 번째 ‘보다’와 같은 ‘보다’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어휘, 통사적 차원을 넘어 기능, 즉 담화 화용적 측면으로 각도를 달리해야 가능하다.

상기했듯, 첫 번째 ‘보다’는 대상으로 시선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네 번째 ‘보다’는 신체적 행위보다, 신체적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쓰임의 목적이 있다. ‘보다’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환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你看’을 ‘喲’로 치환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상기 예(1)에 대한 초보적 관찰을 현실에 대입시켜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 하나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의 표제항이 교재의 대화 속에서 이렇듯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왜 의미, 구조적 측면, 즉 「我看看」이 看의 중첩이며 ‘~좀 해보다’란 시도의 의미를 갖는다와 같은 류의 설명에 치중해있을까? 다시 말해, ‘인공’의 교재에서까지 관찰 가능함에도, 담화 화용상의 다양한 기능과 그것을 초래한 변화에 대해 왜 그간의 교육에서는 그것의 해석과 이해를 교수자와 학습자 각자의 몫으로 미루어 왔을까? 이에 대해 본고는 교재

속의 看에 대한 분석을 일례로 들어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려의 부족을 지적하고 언어의 변화와 기능을 향후 교육으로 도입하는데 있어 무엇이 요구되고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看’과 관련한 연구로는 Huang(2003), 高增霞(2003), 方梅(2005) 등이, ‘我看’이나 ‘你看’을 대두시킨 연구로는 曾立英(2005), 陳振宇 등(2006), 金株希(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는 ‘(我/你)看’이 갖는 통사나 의미 및 기능, 특히 문법화와 주관화에 대한 해석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Huang(2003), 方梅(2005)와 같이 자연담화를 이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담화를 토대로 한 분석인가, 문장을 토대로 한 분석인가의 여부에 있어 차이를 갖기도 한다.<sup>2)</sup> 상기 연구들은 看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계발(啓發)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모두가 언어 자체의 분석에 주목하는 경향을 띠는데 반해, 그 결과가 교육의 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재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교육적 측면에서 ‘실재’, ‘인공’, ‘규범’이라는 일종의 연속선을 가정하고(각주1 참조), 看의 담화 기능에 대한 분석을 일례로 ‘인공’의 교재를 ‘실재’와 ‘규범’ 간에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변화와 기능의 개념이 중국어교육으로 도입되는데 있어 무엇을 성찰하고 재고해야 할 것인지 논의 및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논의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우선, 분석에 앞서 교재 대화문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看에 대한 양적 집계를 ‘실재’로서의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2009)와 비교한다. 그리고 『한어구어』 속의 ‘我看’, ‘你看’, ‘看看’을 중심으로 看의 기능을 분석한 뒤 그것의 기원과 변천을 ‘규범’적 토대로서의 『漢字源流字典』(2008)과 이론적 토대로서의 Traugott(1982, 1989)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의미변화와 기능의 도입이 중국어교육으로 ①그동안

2) 더불어 曾立英(2005), 陳振宇 등(2006), 金株希(2013) 등은 ‘我/你看’을 담화표지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화표지가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거니와, 그에 앞서, 교육으로 언어기능의 도입을 제안하는 본고의 성격 상 아래 ‘我/你看’에 대해서는 그 기능의 제시로만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왜 안 되었는지, 또 ② 왜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③그것이 왜 필요한지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요약과 함축을 제시한다.

## 2. 분석과 비교

### 2.1. 분석의 가정

본고의 성찰은 다음 두 가지 가정에 기댄다. 첫째, 교재 회화문은 1인 또는 2~3인(이하 '1인'으로 간칭)의 저자가 만든 결과물이다. 교재 속에 아무리 많은 인물이 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 인물들을 앞세운 저자 1인의 경험과 가정에 기반한 표상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언어의 실재를 여전히 일정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맥락을 제거한 채 '1인'에 의한 결과물이라고만 보면 교재의 회화문은 상용불가리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가 교재 회화문을 통해 말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1인 저자에 의한 결과물임에도, 그것이 상호작용이라는 매트릭스 속에서 저자가 적용해왔던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둘째, 교재 속에 반영된 저자의 언어는 편린으로서의 '현재'만이 아니라, 연속된 '과정으로서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극지방에서 얼음기둥 하나를 시추했다고 하자. 표면적으로 볼 때 물이 응고된 결과라는 점에서는 얼음기둥의 윗 끝에서 아래 끝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얼음기둥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수백 수 천 만년을 거치며 덧대어진 역사적 결과물이다. 맨 위의 얼음층을 뚫고 있다고 하여 모두 '현재'의 얼음이 아닌 것이다.<sup>3)</sup> 언어도 마찬가지다. 원어민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현재 만들어졌거나 이후로도 불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언어는 사용의 과정에서 한 번도 그 모습을 고정시킨 적이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물론 사용자에 의해서다. 위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원에 불과한 '현재'의 언어를, 측면으로 보면 그 현재가 있기까지

3) '얼음기둥'에 대한 비유는 『코스모스』(제12부)란 영상물로부터 단초를 얻었다.

수없이 많은 환경에 적응해온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재의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얼음기둥을 어디에서 시추했는가의 문제이지 얼음의 1지층이나 2지층이나의 문제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교재에 반영된 저자의 언어에서도, 그것이 현대나 근, 고대나 의 단대적 관점이 아닌, 원어 민들이 예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온 흔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 같은 관점은, 우리는 지금 현대중국어(를 교수·학습하지만 엄밀히 말해 ‘과정으로서의 현대 중국어’ 교수·학습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고 또 이젠 의식적으로도 해야 한다는 생각의 바탕이 된다.

종합컨대 교재 회화문이 비록 1인의 저작이긴 하나 그래서 인공물이라는 명을 쓰고 있으나 그것을 1인 개인의 언어가 아닌 저자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체득한 언어의 반영물이라고 본다면 교재 속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도 해당 언어의 다양한 면모를 국부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분석 결과를 교육의 개선점을 찾는 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2.2. ‘실재’와 ‘인공’: 분포와 빈도

흥미로운 현상 두 가지를 보자. 첫 번째 현상이다. 본고는 『한어구어』 시리즈 여섯 권 내에 있는 일부 동사를 일상의 기본적인 행위범주를 토대로 임의 선별한 뒤 그 빈도를 살펴보았다.<sup>4)</sup>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류	동사
의식주	吃(234), 嘗(26), 喝(40), 住(38), 穿(54), 買(108)
기본동작	去(361), 來(437), 走(69), 坐(69), 跑(18)
언어활동	聽(143), 說(371), 讀(31), 寫(17)
인지인식	覺得(40), 知道(89), 看(433), 想(221), 認為/以為(4/9)
기타	請(109)

4) 빈도값은 특히, 언어변화의 동인이라는 점에서 항목의 어법화 여부와 기능의 다양성 및 기타 제반 현상들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畢永峨 2011:22~24, 方梅 2011:120, 陶紅印 2003:297)

5) 433개는 제목, (대화에 선행하는)지문, 대화 본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제목은 대화

위의 표에서 가장 많은 빈도값을 보인 것은 說(看來 순이다. 이 중 來와 看 간의 차를 무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볼 때 看에 주목해보자. 언어사용의 실제값을 근거로 제작된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 Core vocabulary for learners*(2009)를 보면 상기 세 동사의 사용빈도순은 來(53위) (<去(40위)><看(39위)><說(12위)>로 역전된다. 하지만 역전이 되더라도 看의 지위는 여전히 '실재'와 '인공'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

두 번째 현상은, 인간의 오감이란 영역으로 看을 놓고 보는 것이다.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중 看은 단연 시각을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감을 대표하는 동사들이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에서 어떤 순으로 매김 되어 있는지 아래의 결과를 보자.

聞(2243) < 覺得(166) < 聽(146) < 吃(137) < 看(39)

괄호 안의 숫자는 사전 상의 순위를 가리키는데, 그에 따라 오감을 배열하면 '후각→촉각→청각→미각→시각'의 순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어구어』의 오감 순을 대입해보자.

『빈도사전』 聞(2243) < 覺得(166) < 聽(146) < 吃(137) < 看(39)

『한어구어』 聞(1) < 覺得(40) < 聽(143) < 吃(234) < 看(433)

상기 『한어구어』의 괄호 안 숫자는 빈도값을 보여주는데, 그 흐름면에서,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현상은 『한어구어』의 看이 다른 동사들에 비해 국부적으로나마 실제 사용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줄 것이란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나아가 그에 대한 질적분석이 실제의 언어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我看'이나 '你看'처럼 주어와 연결된 동사구나 '看看'

본문으로부터 발췌된 것이므로 총 437개 중 제목에 출현하는 4개의 看을 제외한 결과이다.

처럼 중첩으로써 과생된 동사구를 중심으로 看이 갖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고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령이 아닌 이상 看이 홀로 쓰일 경우가 없고 대명사와의 결합이나 자기 복제 같은 부가적 경로를 통해 얻는 담화 속 기능은 사전에만 기대서는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데 기인한다.

### 2.3. '인공' 1: 我看<sup>6)</sup>

我看은 교재 속에서 총 33번 출현한다.<sup>7)</sup> 인용구가 아닌 이상 我看의 我는 발화

6) 본고의 '我看'과 '你看'에 대한 기능 분석의 논거는 曾立英(2005), 陳振宇 등(2006) 그리고 『現代漢語詞典』(2012)에 주로 기대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선행연구들의 중점은 대부분 다양한 기능의 분석에 있기 보다는 어법화와 주관화 등의 해석 과정에 치중해 있어 일관되게 기능만을 제시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曾立英(2005), 陳振宇 등(2006), 『現代漢語詞典』(2012)을 토대로 한 데는 무엇보다 본고가 교육을 주요점으로 두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먼저 曾立英(2005)은 '我看'과 '你看'을 논하면서 '動作義', '認知義', '認為義', '推測義', '認識情態義', '評價義'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세분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이지 않다. 하지만 기준의 제시를 떠나서, 曾立英(2005)이 제시한 다양한 의미는 교재의 기능 분석에 있어, 특히 '我看'과 관련하여, 분류와 범주의 명칭 부여 등에 참조점을 시사해 준다. 같은 맥락에서, 看이 你와 결합하며 '認識, 豫測, 提議, 提請注意'를 표시한다고 제시한 陳振宇 등(2006)은 '你看'의 분석과 범주 명칭의 고려에 도움을 준다. 『現代漢語詞典』(2012)는 중국어교육의 대표적인 참고서란 점과, 그 의미항의 제시가 시대의 변화보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 예컨대, ①번 의미항은 '보다', ②번 의미항은 (곧바로)'판단하다'를 제시한다 — 기능 분석의 재고에 기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고의 기능들을 보는데 있어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본고는 화행적 관점에서 기능을 기술한다. 따라서 '動作義'가 看 자체가 가진 의미에 중심을 두었다면 본고는 '我/你看'이 '동작하기'란 화행을 하는 게 아닌란 점에서 각각 '진술(기술(하기)), '지시하기' 등의 기능으로 제시된다. 둘째, 본고는 '교재 속의 상황 맥락에 따른 기능 제시'를 우선으로 한다. 교육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본고는 문법화, 주관화 등의 이론적(또는 세부적) 문제들은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학습자들과 학문적 이론을 공유하자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에서 看1, 看2 등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看 뒤에 '1,2,...'를 붙이는 기능의 세분화된 기술보다 통합적인 기능의 기술을 지향하였다. 셋째, 曾立英(2005), 陳振宇 등(2006)은, 본고의 기능 분석 결과에 모종의 대칭성을 암시해준다. 아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我看'의 기능들이 화자 지향적이라면 '你看'은 청자 지향적인데(曾立英 2005:19) '我看'의 '판단'과 '평가'는 그 지향점을 바꾸면 '你看'의 판단/평가의 '구함'(曾立英 2005:19, 陳振宇 등 2006:7)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대칭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기능의 분석 후 각주18)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7) 이 중에는 '我看看'의 형태로써 '看看'과 10번 중복된다.

자 자신을 가리킨다. '(말하고 있는)내가 보다'라는 뜻의 我看은 교재에서 看的 '보다'라는 의미로부터 약 네 가지 기능이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我看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기술' 또는 '진술'의 예를 보자.

(2) 『한어구어』 6권, 제10과

店員: ……也有的人穿戴搭配不合適: 男的是西服下面一雙運動鞋, 女的是高跟鞋健美褲一起穿, 讓人怎麼看怎麼不舒服。

瑪麗: 是這樣, 有時候我看一些姑娘在街上穿着很短、很薄的衣服, 就是你們報紙上說的'短、透、露', 是讓人覺得挺彘扭的。

예(2)를 보면 瑪麗가 복장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我看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我看은 '내가 보다'라는 의미로서 빈어절 — “一些姑娘在街上穿着很短、很薄的衣服” — 의 내용을 화자 자신이 본 적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즉, 경험에 대한 진술이다. 다음으로 '짐작'이나 '예감'의 기능을 보자.

(3) 『한어구어』 4권, 제5과

兒子: 有好事嘛, 爸爸您猜!

爸爸: 我猜不着。

媽媽: 告訴你吧, 這次考試, 咱兒子得了全班第一, 我看他準能當三好生了。

爸爸: 好兒子, 說說, ……

예(3)에서 媽媽는 좋은 성적을 받아온 아들의 일을 퇴근한 아빠에게 얘기해주며 我看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我看은 선행하여 기술한 사실, 즉 “咱兒子得了全班第一”를 토대로 빈어절의 명제 — “他當三好生” — 에 대한 화자(媽媽)의 예감을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다. 이는 빈어절의 準이란 부사와 호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다음은 '판단'의 예이다. 아래를 살펴보자.

(4) 『한어구어』 6권, 제4과

瑪麗: 付錢怎麼跟打架似的?

王峰: 這也是中國人的一個習慣。……要是這次別人付了錢, 就老覺得欠別人點兒甚麼。

瑪麗: 我看還是AA制好。張明, 你說呢?

張明: 好是好, 不過今天我們是頭一次見面, 這個客還是由我來請。

예(4)는 식당에서 瑪麗, 張明, 王峰이 식사를 하다 계산대 앞에서 서로 먼저 계산하겠다고 씨름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나누는 대화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계산 습관에 대한 王峰의 설명을 들은 瑪麗가 그래도 덫치페이(AA制)가 낫다며 我看으로써 자신의 판단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我看은 여기서 양자 간 비교 중 좀 더 나은 쪽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부사 還是와 호응하고 있는데, 瑪麗는 이를 통해 請客과 AA制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한 뒤 상대에게도 그에 대한 판단을 요구 — “張明, 你說呢” — 하고 있다. 還是와 유사한 기능의 不如와 호응하는 아래의 我也도 이와 동일하다.

(5) 『한어구어』 6권, 제12과

大衛: 我看咱們不如去校醫院, 這也不是甚麼大病, 用不着去大醫院。

瑪麗: 我也這麼想。可是咱們都沒去過校醫院, ……

다음으로 '평가의 我看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6) 『한어구어』 6권, 제3과

司機乙: 幹我們這行的是有些不爭氣的, 有拒載的, 有故意繞道的, 把我們出租車司機的名聲全都搞壞了。可話又說回來, 天底下還是好人多, 你說是吧?

瑪麗: 這倒是。我看你這個人就挺不錯的, 不像有的司機, 說話嘴裡淨帶臟字, 讓人聽了臉都紅。

예(6)의 공간은 택시 안이다. 이미 택시를 한 번 놓친 바 있는 瑪麗가 두 번째 잡은 택시에 올라타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택시기사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러자 司機乙가 자기(업계의) 반성과 함께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

는 의미의 말을 건네고 瑪麗가 다시 말을 이어받으며 我看으로써 그간의 택시기사들의 인상과 대조되는 司機乙의 사람됨을 평가 — “你這個人就挺不錯的” —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기 ‘진술’, ‘예감’, ‘판단’, ‘평가’의 기능을 보인 我看的 예만 모아보자. 그리고 我看을 삭제한 뒤 다시 살펴보자.

- (2') ...是這樣, 有時候我看一些姑娘在街上穿着很短, ...是讓人覺得挺彆扭的。  
 ?(2'') ...是這樣, 有時候 ∅ 一些姑娘在街上穿着很短, ...是讓人覺得挺彆扭的。  
 (3') ...咱兒子得了全班第一, 我看他準能當三好生了。...  
 (3'') ...咱兒子得了全班第一, ∅ 他準能當三好生了。...  
 (4') ...我看還是AA制好。張明, 你說呢?...  
 (4'') ... ∅ 還是AA制好。張明, 你說呢?...  
 (6') ...這倒是。我看你這個人就挺不錯的, ...  
 (6'') ...這倒是。 ∅ 你這個人就挺不錯的, ...

위에서 볼 수 있듯, ‘진술’의 我看은 그것을 삭제할 경우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 ‘我看X’란 명제가 “姑娘穿衣服”란 명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뒤이어, 평가 — “讓人覺得挺彆扭” — 하는 ‘人’과 진술하는 我가 호응하는 구조를 ‘姑娘’과 충돌하는 구조로 바뀌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기능의 我看은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명제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발화 속 의미 흐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감’은 ‘예감’이고 ‘판단’은 ‘판단’이며 ‘평가’는 ‘평가’이다. 이는 我看的 삭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빈어에 대한 看의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상실된 지배력만큼, 상기 예(3)~(6)처럼, 다양한 기능수행 여력이 화용적 차원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4. ‘인공’ 2: 你看

你看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지시하는 你와 동사 看이 결합한 명령문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지시'의 기능을 본위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에서 你看은 총 39번 출현하는데,<sup>8)</sup> 기본적인 '지시' 기능과 함께 상대방 주의의 '환기', 명제관계 전환의 '예고', 상대방 의견의 '구함', 어기나 상태의 '강조' 등 출현한 빈도만큼 我看보다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의 예부터 살펴보자.

(7) 『한어구어』 1권, 제9과

安妮: 傑夫, 今天的作業我有一個問題, 你看。

傑夫: 這個問題我也不懂。

예(7)에서 安妮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다며 傑夫에게 그것을 내보이며 你看을 사용하고 있다. 명령의 어기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看이 중첩된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은 상대의 주어나 시선을 '환기'시키는 기능의 你看이다.<sup>9)</sup> '환기'에서는 동작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동작이 수의적인 경우, 동작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8) 『한어구어』 2권, 제15과

傑夫: 別提了, 真倒霉, 我的自行車丟了。

王平: 怎麼丟的? 你是不是忘了鎖車了?

傑夫: 沒有啊。我鎖得好好兒的, 你看, 鑰匙還在我手裏呢。肯定是被人偷了。

예(8)은 傑夫가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는 상황이다. 잠그는 것을 잊었냐고 묻는 王平의 질문에 傑夫는 啊, 的, 呢 등의 장치로써 그렇지 않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傑夫는 두 진술 — “我鎖得好好兒的”, “鑰匙還在我手裏呢” — 사이에 你看을 위치시키고 있는데, 你看을 중심으로, 선행하는

8) 이 중에는 '你看看'의 형태로써 '看看'과 2번 중복된다. Huang(2003:436)은 자연담화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看이, 기타 절을 빈어로 취하는 동사(matrix verb)들과 다르게, 我보다 는 你와 더 많이 호응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의 看도 비록 근소한 차이 만 그와 유사한 출현 경향을 교재 내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9) Huang(2003:436)은 단독으로 억양단위를 이루는 '你看'을 'attention getter'라고 지칭하였다.

진술은 '단언', 후행하는 진술은 그에 대한 '증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조 속에서 你看은 내보이는 증거, 즉 '鑰匙'로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你看을 사용함에 있어 발화자는 반드시 일정한 신체적 동작이 요구된다. 반면에 수의적인 경우도 있다.

(9) 『한어구어』 3권, 제7과

妻子: 你看, 那邊有帽子, 咱們過去看看.

丈夫: 看帽子幹甚麼?

예(9)는 부부가 같이 걸어가다가 妻子가 모자가게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구경할 것을 丈夫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妻子는 자신이 발견한 모자(가게)를 보라며 你看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 때 妻子는 你看의 발화와 더불어 손으로 대상이 있는 곳을 직접 가리킬 수도 있고 그저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 앞서 두 예가 물리적 대상을 두고 한 你看이라면 좀 더 특수한 경우로서 추상적인 경우도 있다.

(10) 『한어구어』 6권, 제14과

高大强: 沒見過? 前兩天我剛在你這兒做過美容.

變大夫: 噢, 想起來了, 你在我這兒做過鼻子的整容. 怎麼樣? 整容以後感覺不錯吧? 你看你這兒鼻子, 原來又小又平, 戴上口罩就跟沒鼻子似的. 現在呢, ……

예(10)은 시트콤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예이다. 성형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수술에 불만을 갖고 온 高大强에게 의사 變大夫가 되레 자신의 수술을 자찬하는 과정에서 你看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화를 보면, 둘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你看이후로 가리키는 鼻子는 變大夫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高大强 자신은 볼 수가 없다. 즉 여기서 你看의 대상은 가시적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할 발화이며 變大夫는 이를 이용하여 高大强에게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정도의 의미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은 의미구조 속에서 모종의 전환을 '예고'할 때

사용되는 你看이다. 'A+你看+B'의 구조에서 A와 B는 '대조의 관계일 수도 있고 '결론/의견'과 '부연'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예(8)과 같이, '진술'과 '증명'의 관계일 수도 있다.

(11) 『한어구어』 6권, 제8과

山本: 對! 我就是從那個時候開始對中國產生興趣的。

師母: (對兒子)你聽聽! 我說甚麼來着? 這是中國傳統文化, 你老說: '過時了! 過時了!' 可你看, 這片子在外國都有那麼大的影響! 比那星球大戰可強多了!

兒子: 媽, 您又來了, 星球大戰這樣的動畫片兒也有它的特點, 至少能培養孩子的想象力呀。

예(11)은 일본인 손님 山本이 어렸을 적 서유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자 수입 프로그램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兒子에게 師母가 훈계하는 장면이다. 師母는 여기서 '傳統=過時'라는 현세대의 입장에 반대하며 '傳統=有影響'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過時를 有影響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 你看을 사용하고 있다.

(12) 『한어구어』 3권, 제4과

麗莎: ……頭疼, 嗓子也疼, 真難受。

傑夫: 大夫怎麼給你治呢?

麗莎: 每天打一針, 連着打五天。還得吃藥, 一天三次。你看, 大夫開了這麼多藥。

예(12)는 감기에 걸린 麗莎와 치료에 대해 묻는 傑夫간의 대화이다. 麗莎가 증상을 말하고 傑夫는 "大夫怎麼給你治呢?"로써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묻는다. 이에 麗莎는 "每天打一針, 連着打五天。還得吃藥, 一天三次。"으로 대답하는데, 사실 "怎麼治"에 대한 麗莎의 대답은 위의 내용으로도 완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충분하다. 그럼에도 麗莎는 你看을 이용하여 부연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의 지식에 비추어볼 때, 你看 앞의 '吃藥'가 그 뒤의 '開藥' 없이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吃에 이미 開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기인한다.

你看으로 부연된 “大夫開了這麼多藥”가 또 다른 이면 의미인 ‘불평’으로 읽힐 수 있는 근거이다. 다음은 상대방의 판단이나 평가를 ‘구할’ 때 동반되는 你看이다.<sup>10)</sup>

(13) 『한어구어』 6권, 제10과

店員: ……你看, 這是長袖的, 那邊的是短袖的; 這幾件是高檔的, 那邊大部分是中低檔的, 不知你喜歡哪一種?

瑪麗: 我都看花眼了。你看我穿哪一種好?

店員: 像你這樣的身材, 我看穿這種樣式的比較合適,

예(13)은 瑪麗가 旗袍를 맞추러 갔을 때의 상황이다. 店員이 여러 종류의 旗袍를 제시하자 瑪麗가 선택을 못하고 다시 ‘你看+질문’의 형식으로 店員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아래의 예도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你看이 사용되고 있다.

(14) 『한어구어』 5권, 제8과

瑪麗: 大衛, 你看這套茶具怎麼樣?

大衛: 哦, 挺不錯的。你想買嗎?

예(13)~(14)에서 你看은 질문의 성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후행하는 의문문 형식은 그것 자체로도 ‘질문’의 힘을 독립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你看은 질문 앞에 위치하여 ‘의견 구하기’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의 你看을 살펴보자. 분석대상에서 ‘강조’의 你看은 어기를 강조하거나 상태를 강조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관찰된다.

(15) 『한어구어』 3권, 제13과

丈夫: 你怎麼樣了?

妻子: 沒事了, 你看, 我這不是好好兒的嗎?

丈夫: 接到電話的時候, 我都快嚇死了,

10) 이와 같은 형식에 대해 曾立英(2005:19)은 “主動請求對方的意見”, 陳振宇 등(2006:7)은 “要求聽話者表明自己的意見”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15)는 妻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丈夫가 급하게 달려온 상황이다. 丈夫가 상기된 채 妻子의 상태를 묻자 妻子는 '沒事了'로 안심을 시키며 뒤이어 '不是……嗎'의 형식으로써 '好好兒'을 강조하고 있는데, 妻子의 표현을 살펴보면 '沒事'에서 '好好兒'로 그 정도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 과정에서 '정말이야' 쯤의 의미로써, 你看은 선행발화를 긍정하고 후행발화의 표현정도를 상승시키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화자의 어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상태를 강조하는 你看的 예를 보자.

(16) 『한어구어』 5권, 제11과

王峰: ……你自己不會學着做嗎?

瑪麗: 我哪兒會做菜呀?我從來就沒做過菜!

王峰: 其實做菜也沒甚麼難的, 一學就會。你看我, 不是也會做幾個菜嗎?

예(16)은 학생식당의 요리를 보고 엄마의 밥맛을 그리워하는 瑪麗에게 王峰이 스스로 해도 되지 않냐고 하자 瑪麗가 자신은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王峰은 뒤이어 어려운 것 아니라고 자신도 하지 않냐며 '不是……嗎?'로 '也會做'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王峰은 '你看 주어, +동사구'의 구조로 你看을 사용하는데, 상기 예들과는 사뭇 다르게 你看이 후행절의 주어와 한 단위가 되어있다. '你看, 주어+동사구'에서 '你看 주어, +동사구'로 주어가 쉽게 기준하여 좌향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你看은 화자가 주어를 먼저 제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뒤이어 나올 주어의 상태, 즉 동사구가 표현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 같은 기능의 설정은, 만약 상기 상황에서

11) 여기서 '我'는 한정적이고 문장의 진술대상이면서 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Li & Thompson 1981:88) 이를 근거로, 你看은 "我不是也會做幾個菜嗎"의 '我'를 "我, 不是也會做幾個菜嗎"로 화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를 통사적 측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曾立英(2005:20)은 "你看這姑娘怎麼樣?"을 "你看這姑娘,怎麼樣?"으로 읽느냐 "你看,這姑娘怎麼樣?"로 읽느냐에 따라 상이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전자를 '這姑娘'을 앞에 대면하고 묻는 것으로, 후자를 '這姑娘'을 뒤로 하고 묻는 것으로 해석하며 후자에 화자의 태도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다만 예(16)의 "你看我, 不是也會做幾個菜嗎?"에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你看我, 0’로 말을 맺을 경우 상대가 ‘0’에 해당하는 내용을 ‘你怎麼了?’로써 ‘你’로 바꾸어 되물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역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你看에서도 기본적인 ‘지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가 수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我看과 마찬가지로, 마치 문장의 일부처럼 표면적으로는 일률적인 듯 보여도, 그것이 담화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대화의 상황 및 선후행 발화와 맺는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 2.5. ‘인공’ 3: 看看

문맥 속에서의 해석은 我看, 你看처럼 삭제가능성을 가진 단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간 ‘시도하다’란 의미로 일관되게 풀이해왔던 동사의 중첩 형식, 즉 看看의 해석에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看看이라고 하면 흔히 예(7)에서와 같이 ‘~를 좀 보다’로 이해하기 쉽다. 틀린 것은 아니나 원의미만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해석이 협소하고 추상적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관찰에 의하면 看看은 ‘~를 좀 보다’에서 더 나아가 ‘(무엇을 보거나 관찰한 결과로서)~를 하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첩에 의해 ‘보다’란 의미는 가려지고 ‘본’ 이후의 결과가 맥락에 맞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看看은 그것이 어느 상황, 어느 맥락에 출현하느냐에 따라 각각 구체적으로 다르게 해석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17) 『한어구어』 2권, 제8과

李文靜: 這裏的風很大, 冬天得穿羽絨服。

傑夫: 是嗎? 那周末我就去買。要是你有時間, 和我一起去, 幫我看  
看, 好嗎?

예(17)에서 看看이 출현하는 ‘幫我看看’을 맥락을 제거한 채 해석해보자. 예(7)처럼 문제가 있으니 좀 봐달라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이 출현하는 맥락을 살펴보자. 지역 기후에 익숙한 원어민李文靜이 유학생인

傑夫에게 겨울의 상황을 얘기하며 파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자 傑夫가 그에 수긍하며 주말에 사러갈테니 좀 '봐'달라고 한다. 그렇다면 李文靜이 傑夫와 같이 가서 정말 말 그대로 보고만 왔다면 상황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자.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여기서의 看看은 같이 '(보고)의견을 내'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형태적으로 동일한 看看이 또 다른 맥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자.

(18) 『한어구어』, 1권, 제14과

李文靜: 王阿姨, 您怎麼來了?

王阿姨: 聽說你病了, 我來看看你。你怎麼病了?

예(18)의 대화는 王阿姨가 입원해 있는 李文靜을 병문안 온 상황이다. 어떻게 알고 왔냐는 李政靜의 질문에 王阿姨가 주변으로부터 듣고 왔다고 하며 看看을 사용하고 있다. 예(17)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看看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때 王阿姨가 사용한 看看은 '(보고, 즉 만나서)위로하다'라는 구체적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자전거 수리점에서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아래의 예를 보자.

(19) 『한어구어』 3권, 제4과

方雪靑: 可能是車帶的問題, 我半個小時前剛打的氣, 現在又沒氣了。

修車工: 我看看。

예(19)에서 看看은 다시, 공간과 화자의 신분이 바뀌며 상기 예들과는 다른 의미, 즉 '(살펴보고)수리하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화자가 발화한다고 해도 看看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게 해석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20) 『한어구어』 3권, 제8과

售貨員: 您有小票嗎? 粉色的。

方雪靑: 有, 在這兒呢。

售貨員: 好。這種毛衣賣得特別快, 不知道還有肥點兒沒有, 您等一下,

我去看看。

(21) 『한어구어』 3권, 제8과

售貨員: 真對不起, 小姐, 沒有肥的了。您看看別的吧。

方雪青: 這怎麼辦呢? 我媽媽特別喜歡這件毛衣的顏色和式樣。

예(20)과 (21)은, 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샀던 옷을 교환하러 온 方雪靑과 그에 응대하는 직원 간의 대화이다. 두 예가 내용 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교재에서는 직원의 재고 확인을 기준으로 양분되어 있다. 동일 상황 속 동일 화자의 발화이나 예(20)에서의 看看은 자신이 행할 직접적인 행위로서 '(유무를 보고)확인하다'로, 예(21)의 看看은 손님에게 권유하는 행위로서 '(보고)선택하다'로 각각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看看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어기 부여 기능을 수행하는 예도 보인다는 점이다. 먼저 그에 해당되는 예를 보자.

(22) 『한어구어』 3권, 제9과

傑夫: 麗莎, 好久不見, 去哪兒啊?

麗莎: 去書店看看, 買點兒書。

傑夫: 買甚麼呀, 想看甚麼書, 到圖書館去借, 多方便。

예(22)의 看看이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한다고 보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17)~(21)은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빈어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단어, 구, 절 등의 빈어를 삽입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예(22)의 看看은 그렇지 못하다. '書店'과 관련시켜 보면 看看 뒤로 '書'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書'를 삽입할 경우 — '去書店看看書, 買點兒書', 발화 흐름상 어색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화자의 질문 — '去哪兒啊' — 에 대한 대답은 '去書店'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면 '去書店買點兒書'처럼 看看의 생략도 가능하다. 셋째, 『現代漢語詞典』(2012:725)의 설명 — “조사로서 동사나 동사구 뒤에서 시도의 의미를 표시한

다(선행하는 동사는 자주 중첩된다)” — 에 제시된 구조는 ‘VV+看’으로서 선행 동사구의 ‘시도’ 의미를 看이 보조하지만 예(22)는 ‘V(+O)+看看’으로서 『現代漢語詞典』에 역전된 구조를 띤다. 그러나 看을 조사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실질 의미를 상실한 조사가 중첩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요컨대, 예(22)의 看看은 중첩된 형태로 하나의 단위처럼 굳어져 화자가 하려는 행위에 ‘부담없음’이란 어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6. ‘규범’과 ‘인공’: 연원과 의미의 변화

지금까지 我看, 你看, 看看을 예로 들어 교재 속에 분포된 기능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과정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看의 의미가 비단 ‘보다’에만 그치지 않고 대화(문) 속에서 상황 맥락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의미를 획득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漢字源流字典』(2008)에 제시된 看의 의미 기원과 변천을 살펴보고 그것을 Traugott(1982, 1989)이 주장한 의미변화의 흐름에 대입해 볼 것인데, 이는 두 가지 목적에 기인한다. 첫째, ‘규범’으로서의 『漢字源流字典』에 제시된 의미 항목 간 기술내용으로부터 좀 더 추상적인 의미를 추림으로써 상기 ‘인공’에서의 기능 간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를 Traugott(1982, 1989)의 주장에 대입해 봄으로써 언어의 의미 변화와 기능 개념을 교재 대화문에 바탕해서도 도입할 수 있다는 논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說文解字注』(1981:133下)는 看이 手와 目的 결합인 회의자(睃)로서 ‘소매로 햇볕을 가리고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다’란 본의를 갖는다고 하였다.<sup>13)</sup> 『漢字源流

12) 홍미륵계도, 志村良治(江藍生 등 역, 1995:53)가 고대 변문으로부터 제시한 잠시상(短時態, ‘시험삼아 해보다’)의 초기형태를 보면 예(22)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1)校量多少 睃看看(《妙法蓮華經講經文》 P.2133), (2)依實向我說看看(《降魔變文》). 다만, 현재 看看이 하나의 단위로 쓰이는 예가 많은지는 코퍼스에 근거한 향후 관찰이 요구된다.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看。睃也。從手下目。蹠曰。宋玉所謂揚袂障日而望所思也。此會意。(看, ‘바라보다’이다. 손 아래의 눈을 뜻한다. 徐蹠는, 宋玉은(戰國·「高唐賦」에서) “소매를 들어 올려 햇볕을 가리고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다”라고 하였다. 회의자이다.)” 『Yahoo知識+』: <https://tw.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130414000016KK06146> 참고.

字典』(2008:869)도 이에 근거하여 看的 본의를 ‘멀리 바라보다(遠望)’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한 의미의 확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演變】㊦(kàn)

本義爲①遠望：看比賽。<sup>14)</sup>  
 引申泛指②瞅，瞧：看書。  
 進而引申指③仔細觀察：看風使舵。  
 再引申指④根據觀察估量事物發展趨勢：行情看漲。  
 又引申指⑤認為，想：我看這事有點難辦。  
 又引申指⑥決定，取決於：何時開張要看資金能否到位。  
 由遠望，又引申指⑦探望，訪問：看親戚。  
 由瞅、瞧，又引申指⑧對待：看待。  
 由觀察，又引申指⑨診治，治病：看病。  
 又引申指⑩照料：家裡請多照看着點。  
 又引申指⑪提防注意，測試：注意，門臉低，看碰着了頭。<sup>15)</sup>  
 口語裏虛化爲助詞，用在動詞或動詞性短語後面，表示⑫試一試，是‘看怎麼樣的省略：再仔細找一找看。

㊧(kān)

由瞅、瞧，又引申指⑬照管，守護(kān)：看門。  
 又引申指⑭監押，監管，監視(kān)：看押。

위의 내용을 보면 ①~⑥까지는 의미의 연속된 확장을 보여주고 ⑦~⑭까지는 ①~③의 확장에서 비롯된 지류를 보여준다. 이를 의미의 확장 단위별(【】표시)로 재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다.

- 【1】 本義爲①遠望。  
由遠望，又引申指⑦探望，訪問。
- 【2】 引申泛指②瞅，瞧。  
由瞅、瞧，又引申指⑧對待。  
由瞅、瞧，又引申指㊦⑩照管，守護(kān)。  
又引申指㊧⑭監押，監管，監視(kān)。

14) 사전에는 여러 예문이 있으나 필자가 그 중에서 임의로 선별하였다.  
 15) ‘주의’의 표하는 看的 기능과 변화에 관해서는 高增霞(2011)를 참고할 수 있다.

- 【3】 進而引申指③仔細觀察。  
由觀察，又引申指⑨診治，治病。  
又引申指⑩照料。  
又引申指⑪提防注意，測試。
- 【4】 再引申指④根據觀察估量事物發展趨勢。
- 【5-1】 又引申指⑤認為，想。
- 【5-2】 又引申指⑥決定，取決於。
- 【6】 口語裏虛化為助詞，用在動詞或動詞性短語後面，表示⑫試一試，是‘看怎麼樣的省略。

상기 『漢字源流字典』의 기술내용 중 각 묶음들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자. 【1】은 ‘멀리 바라보다’이다. 【2】는 ‘목적을 갖고 바라보다’이다. 그리고 【3】은 ‘무엇을 자세히 들여다보다’이고 【4】는 ‘관찰한 결과로써 추세를 가늠하다’이다. 【5-1】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하다, 판단하다’, 【5-2】는 ‘관찰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다, 관찰 대상을 결정하다’이다. 마지막으로 【6】은 ‘상태나 결과가 어떨지를 시험 삼아 하다’이다.

이 같은 의미의 분류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3】을 보면 바라보는 대상과 관망자가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 이동해 있다. 둘째, 【4】를 기점으로 관망자의 인식활동이 추가된다. 바라보는 직접적 행위보다 바라본 결과를 토대로 한 짐작이나 사고 및 판단 등이 부각된다. 셋째, 【6】에서는 인식이란 개인적 행위가 일종의 ‘가벼움’이란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특징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데,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활동에서 정신활동으로’의 변화를, 또 관찰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유형의 대상에서 무형의 대상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 둘을 종합한다면 ‘외부에서 내부로’란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Traugott & König 1991:208~209<sup>16)</sup>, 曾立英 2005:21<sup>17)</sup>)

16) 상기 의미의 변화 경향은 Traugott & König(1991:208~209)가 제시한 의미-화용적 경향과 일치한다.

경향1: 외부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 > 내부적인(평가, 인식, 인지) 상황에 기초한 의미(Semantic-pragmatic Tendency I: Meanings based in the external described situation > meanings based in the internal (evaluative/perceptual/cognitive)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看의 기능에 대한 상기 분석결과와 비교해보자. 교재의 관찰로부터 우리는 我看과 관련해서 ‘기술’, ‘짐작’, ‘판단’, ‘평가’의 기능을, 你看과 관련해서는 ‘지시’, ‘환기’, ‘예고’, ‘(판단/평가)구함’, ‘강조’의 기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看看과 관련해서는 주로 ‘보다’란 행위 결과에 기인하되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의미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我看의 ‘기술’, 你看의 ‘지시’와 ‘환기’가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신체적 행위에 기반한 화자의 표현이라면(【1~3】) 我看의 ‘짐작’이나 你看의 ‘예고’는 ‘본’ 내용에 근거한 어림의 결과이고(【4】) 我看과 你看의 ‘판단, 평가’ 또는 그것의 ‘구함’은, 어림에서 더 나아가, 화자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 더 많이 부여된 표현이라고(【5】) 가정할 수 있다.<sup>18)</sup> 뿐만 아니라, 상기 【6】의 의미 또는 예(22)에서와 같이(상술했듯 아직 이 둘을 같이 볼 수는 없어도) ‘본다’는 의미 궤도를 이탈할 경우 ‘시도’, ‘가벼움’ 등 화자의 어기 전달에만 기여하는 어휘항목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가정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규범’과 ‘인공’ 간의 비교는 교재 대화문이 비록 모든 방면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漢字源流字典』이 보여준 ‘외부에서 내부로’의 변화과정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같은 분석과 해석의 결과는, Traugott(1982,1989)이 언급한, 어법화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situation)

경향2: 기술된 내부 또는 외부적 상황에 기초한 의미 > 텍스트적 상황에 기초한 의미 (Semantic-pragmatic Tendency II: Meanings based in the described external or internal situation > meanings based in the textual situation)

경향3: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믿음/태도에 점진적으로 맥락화되는 의미 (Semantic-pragmatic Tendency III: Meanings tend to become increasingly situated in the speaker's subjective belief-state/attitude toward the situation)

17) 더불어, 상기 결과는 曾立英(2005:21)이 제시한 경향 역시 지지할 수 있다. “看的意義由觀看義到觀察義到估量義到評價義,(最後發展成話語標記)……對象也在變化,由看實物)看具體事件)看客觀抽象屬性或關係)主觀看法”.

18) 각주6)의 논의를 이어보자. ‘我看’의 ‘기술’, ‘판단’, ‘평가’의 기능은, ‘你看’의 ‘지시’, ‘예고’, ‘(판단/평가)구함’, ‘환기’, ‘강조’ 제외)과 흥미롭게도 일종의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曾立英(2005:19)의 ‘지향성’(speaker/recipient-oriented)을 기대어 보면, 화자의 언어행위인 ‘기술’은 청자로 향하면 ‘지시’행위로, 화자의 ‘예감/짐작’은 청자의 입장에서 ‘예고’로, 그리고 화자의 ‘판단/평가’가 청자로 향하면 ‘(판단/평가)구함’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마치 데칼코마니를 이루듯 대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조심스럽지만, ‘我看’이든 ‘你看’이든 모두 여전히 ‘看’이 기능구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가정할 수 있다.

의미—화용적 변화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propositional > ((textual) > (expressive))

즉, 의미는 순차적으로 명제적, 텍스트적, 표현적 의미를 얻으며 그것의 어휘 항목이 관여하는 층차(component)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Traugott 1989:31) 여기서 명제적 층차는 언어의 내용 즉 명제에 관여되는 부분이고 텍스트적 층차는 담화의 응집과 관련된 부분이며 표현적 층차는 발화 내용에 대한 개인적 태도에 연관된 부분이다. (Traugott 1982:248) 이를 바탕으로 你看的 기능이 관여하는 층차를 검토해보면, ‘지시’는 우선 그것의 삭제는 수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명제적 층차에 관여하고 ‘예고’는 두 명제 간의 관계 표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텍스트적 층차에서 응집에 관여하며 ‘판단이나 평가’, ‘강조’는 후행절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표현적 층차에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我看 역시 이와 유사하며 看看도 기본적으로는 삭제가 불가하나 예(22)와 같이 삭제가 명제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보이므로 상기 방향성에 일정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종합하면, 교재 속 ‘(我, 你, 看)看’에 대한 본 장의 분석 및 비교 결과는 현재 사용 중인 ‘인공’의 회화교재를 통해서도 ‘실재’와 ‘규범’에서 보이는 언어의 여러 모습을 일정 정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실천적 측면에서, 이제는 중국어 교육에서도 의미, 구조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담화, 화용적 측면의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3. 결과의 토론

지금까지 본고는 담화, 화용적 차원에서 看이 갖는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看과 관련하여 교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아래는 看과 관련하여 『한어구어』 여섯 권 속에 기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권호	단어제시	구문/어법제시
1	看(8과): [의미제시 없음], 보다 看病(4과): 진찰을 받다	
2	好看(8과): 보기 좋다 看見(13과): 보다 看來(15과): 보기에, 보아하니	
3	看法(6과, 15과): 견해, 보는 방법 看望(14과): 방문하다, 문안하다, 찾아가 보다	那要看…(2과): '그것은 ~을 보아야 한다'라는 뜻, 관용적으로 '그것은 ~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 看来(6과): 회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말하는 사람이 대화 내용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릴 때 쓰는 표현, 뒤에는 말하는 사람의 견해가 나오고 비슷한 표현으로 看樣子, 看起來 등이 있음 A, 你VV看(13과): 이 구문은 '~ 좀 하다'와 '보다가 만나 ~좀 해 보다'라는 뜻 看把你…的(15과): '당신 ~하는 것 좀 보세요'라는 의미 '어떠어떠한 꼬락서니를 보라'라는 다소 폼하된 의미
4	看(10과): (아이들) 들보다	我看A準V(5과): 我看(=我瞧)는 '내가 보건대, 내가 보기에'라는 뜻으로 문장의 도입부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看把你…得(4과) 看你說的(10과):
5	看花眼(5과):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너무 많아 고르기 어렵다	상대방이 사과나 감사의 뜻을 전해 오거나 농담 또는 부정적인 언급을 했을 때 '不要這麼說(그런 말씀 마세요)'의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 看情況(13과): 상황에 맞는 대책을 취한다는 뜻
6	另眼相看(6과): (이제까지 중시하지 않던 사람을) 다시 보다 看不起(11과): 깔보다, 업신여기다	依…看: (1과)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할 때 쓰는 표현 那就看…的了: (3과) 어떤 일의 성사에 대한 희망을 어떤 사람에게 건다 看樣子: (3과) 앞에 말한 상황 또는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해 추측, 판단할 때 쓰는 말 (看你一副…的樣子(6과)) 這看怎麼說: (4과)

---

어떤 일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  
 沒看出來: (6과)  
 과거에 주의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別看…: (6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습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뜻  
 那要看您(你)…: (7과)  
 어떤 일의 결과는 상대방의 뜻에 달렸다는 의미  
 看不上: (11과)  
 흥미나 관심이 없음을 말함  
 要是…看(你)…: (15과)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함

---

상기 제시된 교재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총 400개가 넘게 출현 빈도수에 비해 看의 단독 의미 제시는 단 2개에 불과하다. 제시된 단어항을 모두 합쳐도 10개 남짓이다. 둘째, 구문/어법에 제시된 항목 역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看이 설명의 중심인 경우가 총 18번 출현하는데, 이 중 약 5개 항목이 중복된다. 예를 들면, 3권의 “那要看…”, 6권의 “這看怎麼說”, “那要看您(你)…”의 看은 모두 상기 『漢字源流字典』의 【5-2】의미에 해당한다. 셋째, 본고의 목적에 준하여 보면, 의미, 구조적 설명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예컨대, 3권의 看來, 別看, 看不上은 모두 『現代漢語詞典』에 어휘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협소한 지면에 한정된 어법항목을 제시해야 한다면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우선 배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4권에서는 我看이 ‘我看A準V’의 형식으로 출현하나 그보다 더 많이 출현하는 你看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이 같은 문제들로부터, 왜 언어의 기능과 변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에서 소홀해 왔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실 수업이 교재에 준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비단 어휘나 어법항목 하나가 더 추가되었나 덜 추가되었나 하는 언어 자체의 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앞서 밝혔듯, 세 가지 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이성하

(1998:111)에서 제시된, 소쉬르 이후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언어학 분야의 기본원칙을 살펴보자.<sup>19)</sup>

- a. 언어학의 연구는 반드시 공시적이어야 한다.
- b. 언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의 연결은 자의적이다.
- c. 하나의 형태는 하나의 기능 혹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 d. 언어란 폐쇄적 체계이다.

진행될 논의는 상기 기본원칙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변화와 기능의 개념이 왜 교육의 테두리로 들어오지 못했을까? 본고는 이 문제가 구조주의의 중시와 기능주의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교재 저자의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구조주의의 영향아래 교육받아 왔고 또 그들이 다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주의의 호불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 어떤 것으로 바라보고 또 규정하는 습관이 고정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언어에 대해 공시적 관념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언어가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교재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마찬가지로, 어법을 고정된 시스템으로 인식해온 것 역시 공시에 대한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현재’ 고정된 시스템이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무엇이 현재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정’이 사회적인 목계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종종 잊혀진다. 따라서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 속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현재’도 ‘고정’도 그 기준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에서 쉽게 제외된다.

---

19) 위의 원칙들은 Heine(1995)의 내용이 재인용된 것이다. 원서명은 이성하(1998)에 “Heine, Bernd(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NY: Oxford University Press”로 되어 있다. 연도의 불일치는 상기 이성하(1998)의 내용이 Heine(1995)의 강의록(Linguistics Institute 1995 Lecture)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이성하 1998:111, 각주1))

이러한 이유로 연구에서는 기능이라고 하면 문장을 최대 단위로 한 요소들 간의 어법기능을 떠올릴 뿐 그 이상의 단위에서 여러 항목들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는 담화기능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쉽게 설정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담화의 수용은 사용이란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변화와 기능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해석의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공시대적 관점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교육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도 의미와 구조를 경계 안으로, 기능을 경계 밖으로 배제시키는 부차적 결과를 빚었고 지금까지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변화와 기능의 개념이 교육으로 도입되기가 왜 힘들까?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정된 시스템으로서의 어법은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다. A면 A, B면 B이다. A와 B는 상호 배타적으로 중간 단계의 범주를 설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어법은 일종의 중층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A도 있고 B도 있으나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범주도 인정된다.<sup>20)</sup> 본고의 분석대상인 *看*도, ‘보다’라는 동사로서도 기능하지만 그것과 의미가 떨어진 조사와 같은 기능도 수행한다. 통사적으로는 동사, 조사로 양분될 수밖에 없지만 화용적으로는, 그것이 사용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담당하는 기능도 맥락에 따라 중층적일 수 있다. 예컨대, ‘환기’의 *你看*이 완전하게 ‘지시’의 기능을 벗어났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4)를 좀 더 연장해서 보자.

(4) 『한어구어』 6권, 제4과

瑪麗: 付錢怎麼跟打架似的?

王峰: 這也是中國人的一個習慣。……要是這次別人付了錢, 就老覺得欠別人點兒甚麼。

瑪麗: 我看還是AA制好。張明, 你說呢?

張明: 好是好, 不過今天我們是頭一次見面, 這個客還是由我來請。

王峰: 那哪兒行啊?

20) 이와 관련한 ‘연속체(continuum)’ 개념과 중국어 예는 居承熹 등(2005:9~14)을 참고할 수 있다.

張明：咱倆還爭甚麼呀！你看，爭也沒用，錢我已經付了。

王峰：嘿，你手真快，甚麼時候交的錢？

상기 맥락에서 먼저 계산한 張明의 你看은 분명 '환기'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가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또한 "咱倆還爭甚麼呀"가 "咱倆不必爭了"란 의미의 단언이라면 후행하는 "爭也沒用，錢我已經付了"는 그에 대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你看은 '예고'의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다. '환기'나 '지시'가 대인적 측면에 관여하는 你看이라면 '예고'는 텍스트의 연결, 즉 응집에 관여하는 你看이다. 하나의 형태가 여러 측면에서 중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용 속의 언어가 임시적이든 정향(定向)적이든 끊임 없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과 더불어 담화의 여러 층차에 관여되어 있다는 가정을 인정해야 수용 가능하다.<sup>21)</sup>

하지만 고정적 시스템의,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지식을 전달해야한다는 신념하에 진행돼 온 언어 교육은 자칫 그 체계를 부정할 수 있는 개념들을 논외로 미뤄두거나 '습관'이란 이름을 붙여 예외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공시에 통시를 더해야 하는 교육 상의 불편함도 덜어낼 수 있었고 '유동적 시스템은 연구에서, 고정적 시스템은 교육에서'라는 이분법도 성립시킬 수 있었다. 언어의 변화와 기능에 관련한 개념들을 도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관행이 점점 고착화되어 교육하는 교수자에게도, 받아들이는 학습자에게도, 체재의 반영물인 교재에도 수용이 수월하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와 기능의 개념이 언어 교육으로 도입되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교수학습해야하는 언어는 특별한 지식체계로서의 무언가가 아닌 그들의 일상과 그 일상 속의 언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재는 그것의 단면을 옮겨 담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Shannon 2010:397) 물론 상기 두 관념 간의 시각차로 인해 비록 그것의 도입이 쉽지는

21) 언어항목들이 관여하는 층차와 관련하여 Schiffrin(1987:25)은 다섯 개 층차 — 참여자들(participation framework), 명제구조(ideational structure), 행위구조(action structure), 교환구조(exchange structure), 정보상태(information state) — 를 아우르는 담화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양파의 표피를 일부 떼어내면 세포의 구조는 볼 수 있어도 양파의 성장은 물론 양파 자체도 볼 수 없는 아이러니를 빚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어휘와 관용어구, 문형과 어법 등 양파의 표피에 해당하는 것만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언어 재료의 제공은 당연히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론의 내용이 증명하듯 언어 재료의 친절한 제공만이 교재의 내용이어서도 또 교육의 주된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급진적인 도입 역시 적절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대화문을 먼저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례상 대화문의 학습은 단어, 핵심어구, 문장 등 언어 구조의 형태를 따라, 흔히 밑에서부터 위로의 구조화된 학습을 한다. 하지만 그것의 상위적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화문 학습에 필요하다 본다.<sup>22)</sup> 즉, 그 대화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요한 언어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한국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뒤 언어 재료가 이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용되는지를 교수학습한다. 대화가 언어 재료를 학습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 언어 재료를 학습하고, 언어 재료를 배우고 (외국)언어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 재료를 배운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자칫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생각과 수행은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러나 그동안 언어(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의 중요함을 일깨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재료에 갇힌 외국어 학습에 유연함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실천이 되풀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언어의 기능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유발시킨 뿌리도 탐색할 여유가 생기며 교재로의 명문화된 기술도 가능할 것이다.

22) 엄익상(2009:522)은 '유창성 향상 방안'으로서 표현에서부터 단어의미로 향하는 하향식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의 논의 역시 하향식을 지지한다. 다만 하향식의 고려 단위가 언어 자체 내부에서만 아닌, 언어 외적인 측면에서 내적인 측면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요약과 함축

지금까지 본고는 『한어구어』 속 看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언어의 변화와 기능의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성찰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재’와 ‘인공’, ‘규범’과 ‘인공’ 간의 비교는 교재를 통해서도 변화와 기능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한국의 중국어 사용인구가 국내외에서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교육의 수요는 물론 그에 대한 질적 제고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관의 증가, 학습량의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서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으로 그 방향이 선회하는 만큼 언어의 교육도 기존의 의미와 구조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언어변화와 언어기능의 도입은 그에 부합하는 실천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보았듯, 교재 속 회화는 모방된 일상의 일면을 담고 있다. 언어의 변화와 다양한 기능에 대한 관찰을 비단 연구의 대상으로만 위치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으로도 위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실재’, ‘인공’, ‘규범’ 간의 관계 속에서 교재가 가진 현실과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으며 또 학습자가 느끼는 학습내용과 실제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金株希, ‘我看’의 의미기능에 관한 소고, 『中國學論叢』, 제41집, 2013, pp.1~18.  
 박승억, 『학문의 진화』, 파주, 글항아리, 2015.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8.  
 엄익상, 한국인용 중국어 교재 편찬을 위한 제안, 『中語中文學』, 제44집, 2009, pp.513~531.  
 畢永峨, 遠指詞那詞串在臺灣口語中的詞彙化與習語化, 吳福祥主編, 『漢語主觀性與主觀化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1, pp.21~42(原載於『當代語言學』, 第2期2007).  
 陳振宇, 朴珉秀, 話語標記‘你看’、‘我看’與現實情態, 『語言科學』, 第5卷第2期, 2006, pp.3~13.

-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方梅, 認證義謂賓動詞的虛化——從謂賓動詞到語用標記, 吳福祥主編, 『漢語主觀性與主觀化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1, pp.93~125(原載於『中國語文』, 第6期, 2005).
- 高增霞, 漢語的擔心—認識情態詞“怕”“看”別的語法化, 吳福祥主編, 『漢語主觀性與主觀化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1, pp.126~146(原載於『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第1期, 2003).
- 谷衍奎編, 『漢字源流字典』, 北京, 語文出版社, 2008.
- 呂叔湘主編, 『現代漢語八百詞』, 香港, 商務印書館, 1983.
- 屈承熹, 紀宗仁, 『漢語認知功能語法』,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 陶紅印, 從語音、語法和話語特徵看‘知道’格式在談話中的演化, 『中國語文』, 第4期, 2003, pp.291~302.
- 曾立英, 我看與你看的主觀化, 『漢語學習』, 第2期, 2005, 15~22.
- 志村良治著, 江藍生, 白維國譯, 『中國中世語法史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5.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六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Huang, Shuanfan, Doubts About Complementation: A Functionalist Analysis, *Language and Linguistics*, 4(2), 2003, pp.429~455.
- Li, Charles N., Sandra A. Thompson, *Mandarin Chinese—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Schiffrin, Deborah,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hannon, P., 'Textbook Development and Selection', edited by Penelope Peterson, Eva Baker, Barry McGaw,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Third Edition), Vol.1, Elsevier, 2010, pp.397~402.
- Traugott, Elizabeth Closs,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s: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Lehmann, P. Winfred, Yakov Miflkiel eds.,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2, 245~271.
- Traugott, Elizabeth Closs,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An Example of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 *Language*, 65(1), 1989, pp.31~55.

- Traugott, Elizabeth Closs, Ekkehard König, 'The Semantic-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ed', Traugott, Elizabeth Closs,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1, pp.189~218.
- Xiao, Richard, Paul Rayson and Tony McEnery,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 Core Vocabulary for Learners*, London, Routledge, 2009.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한어구어』 1, 서울, 동양북스, 2009.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한어구어』 2, 서울, 동양북스, 2009.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한어구어』 3, 서울, 동양북스, 2010.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한어구어』 4, 서울, 동양북스, 2011.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한어구어』 5, 서울, 동양북스, 2009.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한어구어』 6, 서울, 동양북스, 2010.
- 『Yahoo知識+』(각주10): <https://tw.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130414000016KK06146>.
- 『코스모스』 제12부: 지구의 메시지(2014년 5월 31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中文提要〉

本文目的在于通过分析会话教材『汉语口语』系列里出现的‘看’考虑如何把语言演变和功能概念引入到汉语教学并提出一些意见。为此, 本文首先讨论为何要重视教材会话, 再在频率和分布方面与 *A Frequency dictionary of Mandarin Chinese* 比较, 而分析教材里的三个语言项目—‘我看’、‘你看’、‘看看’, 并借鉴『汉字源流字典』和Traugott(1989)说明分析结果在教学方面有什么意义, 进而商榷韩国汉语教学圈为何到现在不太注重语言演变和语言功能概念以及为何往后在教学实践过程中需要考虑其概念而引进。

關鍵詞: 功能, 演變, 我看, 你看, 看看, 漢語教材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